

담양, '향촌복지' 공약 실현 가속도

군민 중 32% 노인인구 특성 고려 보건기관 확대·건강서비스 구축 응급조치 장비 955대 연내 보급

담양군이 민선8기 핵심 공약사항인 '향촌복지' 실현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군민의 약 32%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약인 향촌복지 실현을 통해 담양군만의 특색 있는 복지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보건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건강증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요리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으로 보건기관의 다양한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일선 기관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신축과 개보수를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지킴이단을 확대 운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르신 복지를 강화했다.

어르신지킴이단은 공적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자원봉사자와 1대 1로 연결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코로나 19 방역수칙 점검, 고독사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병노 담양군수가 한 주민을 찾아 건강과 안부를 묻고 있다. /담양군 제공

폭우와 폭염 그리고 겨울철 난방 등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할 경우 옥외방송 청취가 어려워 재난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청취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안에서 마을방송 청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센터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촘촘한 복지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과 소방서(119)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955대를 연내에 보급할 방침이다.

반응감지센서(활동, 출입문, 화재, 가스 등)

및 응급호출기로 구성된 장비의 보급과 더불어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과 찾아가는 보건지소 등 더욱 섬세한 마을별, 권역별 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존 요양원의 시설 개선과 네트워크화를 통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담양형 복지모델인 '향촌복지'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 촘촘한 복지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민 설명회 내일 개최

나주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수 년 간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당초 지난 5일 예정했으나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시민 안전을 우려해 잠정 연기되면서 개최 일정을 재조정했다.

설명회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그동안의 주요 경과, 추진 방향을 비롯해 법적 소송 결과와 의미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역 SRF생산 및 소각과정 사례 공유와 환경 분야 전문가 설명을 더하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SRF와 관련된 연이은 소송 패소로 인해 우리 시의 법적, 행정적 조치 영역이 좁아진 상황에서 시민들과 현실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영광군의 초청으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 /영광군 제공

영광,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초청 특강 성료

영광군은 최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초청해 강중만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 국고 보조사업 담당자 등 직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재정현황 및 국비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 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안도걸 전 차관은 재정 제도의 기본 틀, 국가 재정 및 정부예산편성 현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과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 및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직면한 미래 재정위험 파악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재정혁신 5대 정책과제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3년의 기다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열린다

내달 8일부터 시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오는 10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황룡강 일원에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개최된다.

황룡강은 매년 가을 개화시기마다 피어나는 수십억 송이의 가을꽃으로 유명하다. 강변 3.2km 구간에 장관을 이룬 화려한 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꽃축제는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라남도에서도 축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2회에 걸쳐 '전남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이전까지 축제명은 노란꽃잔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양한 빛깔의 가을꽃을 조화롭게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로 새롭게 명명했다. 황화코스모스를 비롯해 핑크몰리, 천일홍, 백일홍 등이 다채롭게 심었다.

축제는 ▲별빛장성(공간전시) ▲감성장성(문화공연) ▲함께장성(체험 및 참여) ▲같이장성(축제 연계행사) 4개 테마와 3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8일에는 오후 6시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남도 명인, 명창들의 국악 공연이 열려 황룡강 가을꽃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지역문화예술인 공연과 황룡강 미니 버스킹, 전국국악경연대회, 전통시장 페스티벌 등이 열려 흥을 돋운다.

전통열차와 수상 체험, 야간경관 조성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축제와 연계한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

이밖에도 축제장 곳곳에 자리한 테마별 생태정원이 로맨틱한 가을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될 예정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이밖에도 축제장 곳곳에 자리한 테마별 생태정원이 로맨틱한 가을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될 예정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 나주 명예시민 됐다

래리호건·유미호건씨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호건과 그의 아내이자 미국 연방주 역사상 최초 한인 퍼스트레이디인 유미호건 여사가 나주시 명예시민이 됐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 메릴랜드 주지사 방한 축하연회에서 자리에서 운병태 시장이 래리호건 주지사과 유미호건 여사에게 나주시 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호건 부부는 10번째와 11번째 나주시 명예시민으로 등록됐다. 명예시민은 나주시 주관 기념식, 각종 문화 행사 내빈으로 초청하며 나주시민에 준하는 다양한 예우와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이재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새마을지도자 청계면협, 환경정화 활동

새마을지도자 무안군 청계면협의 회(회장 배석만)는 최근 도립리 등 청계면 소재지 일원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목포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남성3리 상석촌 마을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에 버려진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과 담배꽂초, 재활

용품,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수거했다. 이해향 청계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가까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협의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면의 환경 보호에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 노인대학 운영 재개

신안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노인대학 운영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반기 노인대학은 지난 14일 압해중앙노인대학을 시작으로 8개소가 개강하고 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교양강좌, 건강제조교실, 풍물교실,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12월 중순까지 매주 1회 운영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운영 재개로 활력을 되찾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참여와 노후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암, 청렴 도전 스마트 골든벨 실시

영암군이 최근 왕인실에서 영암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도전 스마트 골든벨을 실시했다.

전년도 청렴도 취약 분야였던 조직 내부의 혁신과 청렴 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2019년도에 이어 3년 만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면 행사로 총 33개 부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퀴즈대회는 리모컨 시스템을 활용해 1라운드에서 2라운드까지 진행한 후 결승진출자를 대상으로 3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수상의 영예는 최우수상에 종합민원과 김용기 주무관을 포함해 개인 부문 6명, 부서 부문 5개 부서가 각각 선발됐다. /영암=최복섭 기자